■민족문화연구 제108호(2025.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045-077.
http://doi.org/10.17948/kcs.2025..108.045

동경에서의 이인화
—스쳐간 만세 '전'의 풍경, 그 처음—

박현수(朴賢洙)*

목 차

1. 문제의 소재; 동경이라는 표상
2. 귀국허가와 K정 방문
3. K정에서의 배회
4. 'M헌'이라는 공간
5. 알 수 없는 울분과 전차 속 노동자들
6. 동경의 양가적 성격

국문초록

염상섭의 「萬歲前」에 등장하는 'W대학'과 'K정'은 와세다대학과 간다정을 가리키는데, 이 경우 한자어를 조선식으로 표기하는 관행에 따르지 않았다. 소설에 나타난 '과세'라는 표현을 통해 「萬歲前」의 시간적 배경이 1918년 12월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인화가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한 K정의 '총곡옥'은 백화점에 가까운 쇼핑몰이었다. 소설은 이인화가 이발소를 찾거나 서점에 들른 것을 우연한 일로 서술하고 넘어가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萬歲前」에서 이인화가 방문한 'M헌'이 스킨십을 제공했던 카페였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 두 가지를 말해준다. M헌을 나선 이인화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울분 때문에 K강변을 배회하는데, 그가 전차를 탄 곳이 '포병공창' 앞이었다는 것도 간과해서 안 된다. 전차 속에서는 지친 노동자들을 보고 이인화는 그들의 얼굴 속에서 순박함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가 울분을 토로하거나 노동자에게 동정을 느끼는 감정은 일부분에 한정된다. 보다 중요하게 동경은 자신을 옭아매는 조선의 봉건적 억압에서 자유로운 공간, 혹은 적어도 그 억압을 망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동경에 대한 인식

* 성균관대 학부대학 대우교수

의 중요성은 여정을 통해 조우하는 식민지적 현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지점이다.

주제어: 염상섭, 「萬歲前」, 이발소, 서점, 카페, 포병공창, 노동자, 봉건적 억압

1. 문제의 소재; 동경이라는 표상

염상섭의 소설 「萬歲前」[2]은 이인화가 다시 경성을 떠나는 장면을 결말로 한다. '동경(東京; 도쿄)'[3]에서 유학 중이던 이인화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경성(京城; 게이조)'을 향하게 되는데, 이후 소설의 흐름은 동경에서 경성에 다다르는 여정과 맞물려 있다. '동경'을 떠나 '신호(神戶; 고베)', '하관(下關; 시모노세키)', 부산, 김천, 경성 등으로 이어지는 이인화의 여정이 그것이다. 만세 '전'이라는 시간을 상징하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소설이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산후더침으로 병석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하던 아내는 이인화가 경성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인화는 정해진 순서처럼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유학 중이던 동경으로 돌아가려 한다. 소설에는 이인화가 경성을 떠나기 전 김천 형님과 나눈 대화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 車가 써나랴 할 제 金泉 兄님은 乘降臺에 섯는 나에게로 갓가히 닥아스며,

---

2) 「萬歲前」은 1920년대만도 3개의 판본이 있다. 1922년 7월-9월 『신생활』에 연재되다가 중단된 것, 1924년 4월 6일-6월 4일 『시대일보』에 연재된 것, 또 '고려공사'에서 간행된 단행본이 3개의 판본이다. 이 글은 1924년 8월 출간된 단행본을 논의의 대상으로 했다. 3가지 판본의 차이와 의미에 대해서는 최태원, 「〈묘지〉와 〈만세전〉의 거리 -'묘지'와 '신석현(新潟縣)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103, 한국학회, 2001, 107-130면; 박현수, 「「墓地」에서 「萬歲前」으로의 개작과 그 의미」, 『상허학보』 19호, 상허학회, 2007, 377-408면 참조.

3) '東京'은 지금의 표기법에 따르면 '도쿄'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글이 다루는 시대의 조선 사람들은 '도쿄'가 아니라 '동경'이라고 불렀다. 이 글에서 고유명사는 당시의 관행을 존중하는 방식에 따르겠다. 단 처음에 나올 때는 '동경(東京; 도쿄)'처럼 당시 부르던 이름을 쓰고 지금의 표기법에 따른 이름을 부기하겠다.

"來年 봄에 나오면, 어쩌케 다시 成禮를 해야 하지 안니? 네젠 무슨 心算이 잇니?" 하며 난데업는 소리를 뭇기에,

"겨오 무덤 속에서 빠져나가는데요? 쌋듯한 봄이나 만나서 別莊이나 한아 작만하고 거드럭어릴 째가 되거든요? ……." 하며 나는 웃어버렷다.[4]

경성역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열차가 떠나려 할 때 형님은 이인화에게 다음 해 봄에 조선에 나오면 재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이인화는 겨우 무덤 속을 빠져나간다며 그런 생각은 따뜻한 봄이 되고 별장이나 마련할 때가 되면 생각해보겠다는 우스갯소리로 대답을 피한다. 하지만 '겨우 무덤 속을 빠져나간다'는 말에는 완강한 거부의 의사 역시 담겨 있다.

이인화의 언급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무덤'과 '빠져나간다'는 표현이다. 경성을 떠나 동경으로 향하는 길이니 당연히 '무덤'은 경성 혹은 조선이 된다. 그리고 '빠져나가다'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제한된 환경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니, 동경은 묘지인 경성이나 조선과는 반대의 성격을 지닌 공간이 된다. 실제 앞선 인용과 무덤을 빠져나간다는 표현은 「萬歲前」에 대한 평가와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당대 조선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재현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萬歲前」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면인데, 「萬歲前」이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 조선의 식민지적 현실을 핍진하게 그렸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긍정적인 평가만큼은 아니지만, 소설에 그려진 조선의 현실이 지식인의 자의식에 침닉되었으며 나아가 식민주의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논의 역시 자리하고 있다.[5]

후자의 평가가 기대고 있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결말 부분에서 이인화가

---

4) 염상섭, 「萬歲前」, 고려공사, 1924, 194-195면. 이하 인용문은 원문의 맞춤법을 따르는데, 띄어쓰기는 현대식으로 한다.

5) 근래의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하정일, 「보편주의의 극복과 복수의 근대」, 『염상섭문학의 재인식』(문학과사상연구회 편), 깊은샘, 1998, 47-77면; 서재길, 「「만세전」의 탈식민주의적 읽기를 위한 시론」,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사에구사 도사카쓰 외), 소명출판, 2003; 손성준, 「텍스트의 시차와 공간의 재맥락화」, 『동악어문학』 62호, 동악어문학회, 2014, 5-47면; 이종호, 「염상섭 문학과 사상의 장소-초기 단행본 발간과 그 맥락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6, 한민족문화학회, 2014, 7-43면 참조.

한 언급이다. 조선을 묘지로, 동경을 그 반대편에 위치한 공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식민주의 시각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조선인들을 아침을 담배타령으로 시작하고 때를 가리지 않고 술만 마신다는 것, 따라서 조선은 공동묘지이며 거기서 사는 조선인은 구더기라는 조소 역시 이인화라는 지식인의 근대적 지향에 굴절된 것으로 파악한다.

실제 「萬歲前」에서 당대 조선을 재현하는 문제는 동경에서 경성에 이르는 여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앞서 「萬歲前」의 중심이 이인화의 여정에 놓여 있음은 확인한 바 있다. 「萬歲前」이 여로형 소설로 불리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6] 주목해야 할 점은 여로가 당대 조선의 현실을 드러내는 데도 활용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萬歲前」에 대한 평가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문제가 하나 있다. 부정적인 평가가 부각시키고 있듯이 엄밀하게 접근할 경우 아버지, 형님, 김의관, 대전역의 조선인 청년 등 조선인의 부정성에 주목하는 부분이 「萬歲前」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근대나 문명을 상징하는 동경의 반대편에 위치하거나 동경이라는 표상에 비친 그것들이다. 반대편에 위치하든 혹은 거기에 투영된 것이든 그것을 매개로 조선의 현실이 재현되었다고 할 때, 「萬歲前」의 온전한 성취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동경이라는 표상과 그 의미에 접근할 필요가 제기된다.

필자는 근래 「萬歲前」에서 동경에서 부산에 이르는 이인화의 여로 가운데 철도와 관부연락선이라는 기제에 천착해 그 실상과 의미를 해명한 바 있다. 이인화가 동경에서 하관까지 이동했던 '동해도선(東海道線; 도카이도선)', '산양선(山陽線; 산요선)'의 소요 시간, 좌석, 시설 등을 확인하는 한편 그 철도가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 침탈과 대륙으로의 진출을 꾀했던 노선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관부연락선에 주목한 논의에서는 이인화가 선실을 왜 참외 원두막에 비유했는지, 또 선내에 목욕탕을 설치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등의 문제도 해명했다. 나아가 연락선의 역할이 동경에서 하관으로 이어지는 철도

6)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 출판사, 1987, 189-218면 참조.

와 부산에서 경성을 거쳐 대륙으로 나아가는 철도를 연결시키는 기제였음을 밝혔다.[7]

논의에서 필자가 주목하려 했던 것은 「萬歲前」에 나타난 동경에서 경성에 이르는 여로와 그것을 통한 이동이라는 기제 자체가 당시 조선의 현실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앞서 확인한 것처럼 이인화는 여로와 이동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접하고 또 인식하는 과정에는 동경이라는 근대적 표상 역시 작용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萬歲前」이 식민지 조선의 온전히 재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앞선 기제와 함께 동경이라는 공간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소설의 결말 부분에 나타난 이인화의 언급의 의미에 제대로 접근하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 이인화는 형님과의 대화에서 무덤 속을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무덤의 반대편에 위치한 동경은 앞서 다룬 근대적 공간이나 표상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런데 동경에서 경성에 이르는 여정을 통해 이인화의 인식에 변화가 있었다면 언급에 나타난 동경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역시 동경이라는 표상의 의미를 묻는 작업이 「萬歲前」의 온전한 성취를 가늠하는 논의와 맞물려 있음을 말해준다.

2. 귀국허가와 K정 방문

「萬歲前」은 동경에서 대학을 다니던 이인화가 조선으로 나오라는 전보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소설은 그 장면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 朝鮮에 萬歲가 니러나든 前해 겨울이엇다. 그때에 나는 半쯤이나 보든 年終試驗을 中途에 내어던지고 急작시리 歸國하지 안흐면 안이 될 일이 잇섯다. 그것은 다른 때문이 아니엇다. 그해 가을부터 解産 후 더침으로 시름々々 알튼 나의 妻

7) 박현수, 「스쳐간 만세 '전'의 풍경 1-일본의 철도와 부산 시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1, 177-212면; 박현수, 「스쳐간 만세 '전'의 풍경 2 -연락선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63호, 상허학회, 2021, 337-352면 참조.

가 危篤하다는 急電을 바든 까닭이엇다.[8]



〈그림 1〉 개교 당시 동경 와세다대학의 정문
(富田昭次, 유재연 역, 『그림엽서로 본 일본 근대』, 논형, 2008)

전보를 받은 이인화는 귀국허가서를 받기 위해 "爲先 W大學 正門을 向하야 총々거름을 거럿"는데, 여기서 당시 그가 다니던 학교가 W대학임을 알 수 있다. 소설에 나오는 동경의 W대학은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으로 파악된다. 초기 「萬歲前」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를 개진했던 김윤식 역시 W대학을 와세다대학으로 파악하지만 그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9]

문제는 와세다의 한자어 표기가 '早稻田'이라는 것이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도쿄(東京)를 '동경', 오사카(大阪)를 '대판', 시모노세키(下關)를 '하관'으로 부르는 등 한자어 표기를 조선식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10] 그렇다면 와세다대학 역시 한자어에 따라 조도전대학, 곧 'J대학'이라고 부르고 표기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후 소설에 나오는 '간다(神田)'까지의 전차 노선, 전차종점, 우편국 등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W대학은 와세다대학이 맞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는 당시 조선인들에게 와세다대학이 잘 알려지지 않아 '早稻田'이라는 한자어 표기를 조선식으로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칭하는 와세다대학이라는 이름에 따라 W대학으로 표기했을 것이다. 「萬歲前」에서

8) 염상섭, 앞의 소설, 1924, 1면.
9) 김윤식, 앞의 책, 1987, 194-211면 참조.
10) 이는 「萬歲前」에서도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시모노세키(下關)를 각각 동경, 대판, 하관이라고 표기한 데서도 나타난다.

간다를 '神田'이라는 한자어에 따라 S정으로 표기하지 않고 K정으로 표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와세다대학은 1882년 설립된 도쿄전문학교(東京専門学校)를 전신으로 한다. 설립자는 이후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하게 되는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였다.[11] 설립 당시에는 정치경제학과, 법률학과, 이학과, 영문학과 등 모두 네 개 학과가 있었다. 1904년에는 전문학교령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계기로 상과를 신설했다. 1920년 2월에는 문부성 고시 제36호 대학령에 의거해 정식으로 일본 최초의 사립대학으로 인가되었는데, 당시 같이 인가된 학교가 게이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學)이었다.[12]

「萬歲前」의 시간적 배경인 1910년대 말 와세다대학은 사립대학으로 정식 인가되기 전이었지만 도쿄를 대표하는 사립대학으로 명성이 높았을 때였다. 또 당시 개설된 학과가 정치경제학과, 법률학과, 이학과, 영문학과, 상과였다는 점, 또 소설에 W대학 문과에 재학 중이었다고 언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인화는 도쿄의 대표적인 사립대학이었던 와세다대학의 영문학과에 재학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인이라는 멍에는 메고 있었지만 도쿄를 대표하는 사립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었다는 데서 당시 이인화의 학문적 자부심을 짐작해 볼 수 있다.

「萬歲前」에는 조선으로 급히 나오라는 전보와 함께 '전보환(電報換)'을 받은 것이 연종시험 보는 둘째 날이었다고 되어 있다. 전보환은 당시 우편으로 돈을 송금할 때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었다. 발송인이 얼마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 전보환을 발행해 수취인에게 보내면 수취인이 근처 우체국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찾는 제도였다.[13] 4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하숙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는 언급이 없는 것은 학교 근처에서

11) 오쿠마 시게노부는 일본 사가(佐賀)의 무사 출신으로, 이후 정치인이자 교육자로서 활동했다. 정치인으로는 8대, 17대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했으며, 교육자로서는 와세다대학교의 전신인 도쿄전문학교를 설립했다. 여기에 관해서는 片岡寛光, 『国民リーダー大隈重信』, 冨山房インターナショナル, 2009, 453-462面 참조.

12) 『早稲田文學』, 早稲田文學社, 1906, 1-3面 참조.

13) 김상규, 『염상섭의 삼대(三代) 어휘 사전』, 이페이지, 2017, 전보 항목 중.

하숙을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것은 귀국을 허가받기 위해 다시 W대학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동경에서 K정이나 동경역으로 갈 때, 또 동경에서 신호나 하관 등으로 이동할 때 등 이동수단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특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았음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 돈은 그 달 學費까지 併하야 百圓이나 보내 왓섯다. 病人은 죽엇든 살앗든, 何如間, 돈 百圓은 반갑지 안은 게 아니엇다. 試驗 째는 당하야 오고 未久에 過歲를 하랴면, 돈 쓸 일은 한두 가지가 안인데, 憂患이 자즌 집에다가 대고 철업는 兒孩 모양으로 덥허노코 돈 재촉만 할 수도 업는 터에 마침 生光스럽엇다. ……중략…… 나는 큰길로 싸저 나와서 郵便局으로 향하얏다.[14]

인용은 전보와 함께 전보환으로 받은 돈이 100원이었음을 말해준다. 수업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는 했지만, 1910년대 말 100원은 현재로 따지면 400-500만원에 해당되는 큰돈이었다.[15] 전보환으로 온 돈의 크기와 이인화의 동경 생활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상론하겠다. 한편 '과세(過歲)'를 하려면 돈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했는데, 양력으로 설을 쇠는 일본의 관습을 고려하면 앞선 언급처럼 「萬歲前」의 정확한 시간적 배경이 1918년 12월이었음도 알 수 있다.

우편국에서 전보환을 10원짜리 지폐 열 장으로 받은 이인화는 다시 W대학을 향해 걸음을 옮긴다. 주임교수를 만나 사정을 얘기하고 귀국허가를 받기 위해서였다. 마침 퇴근 준비를 하던 H교수에게 귀국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시험을 치르기 귀찮아서로 오해할까 하는 자격지심에 어머니 병환이라고 둘러댄다. H교수는 추후시험은 번거롭지 않겠냐고 하면서도 급한 사정을 듣고 결국 귀국을 승낙한다.

「萬歲前」에서 이인화는 와세다대학교 영문학과에 다니며 학교 근처의 하숙

14) 염상섭, 앞의 소설, 1924, 3면.
15) 식민지 경성의 물가에 관해서는 박현수,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조선의 물가—음식 가격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2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3, 235-253면 참조.

집에서 생활을 한다. 하숙집 주부나 '찬밥덩이'로 불리는 여자 하인의 이인화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숙의 여건 역시 나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내가 위독하니 급히 귀국하라는 전보를 받았지만 그에게 위독한 아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보내온 전보환 100원이었다. 귀국하라며 송금한 100원이라는 돈의 크기 역시 그가 동경에서 경제적인 여유를 지니고 유학생활을 해 왔음을 말해준다.

W대학을 나온 이인화는 K정으로 향하는 전차에 오르는데, 소설에 그곳이 '전차종점'으로 나와 있음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K정'은 뒤에 이인화가 들르는 책방이 '동경당', 곧 동경당서점(東京堂書店; 도쿄도쇼텐)임을 고려하면 치요다구(千代田区)에 위치한 '간다정(神田町)'임을 알 수 있다.[16] 한자어 표기를 조선식으로 읽어 'S정'이라고 하지 않고 'K정'이라고 한 것은 앞서 와세다대학교를 'W대학'라고 부른 이유를 살펴보면서 확인했다.

이인화가 K정으로 가기 위해 탑승한 전차 노선은 '에도가와선(江戸川線)'이었는데, 소설에는 'E街道線' 정도로 나온다. 에도가와선은 당시 에도가와바시(江戸川橋) 정거장을 종점으로 도심과 연결되었던 노선이었다. 그런데 1918년 6월 와세다 정거장이 개설되는 것과 함께 노선이 연장되어 와세다 정거장이 종점이 되었다. 「萬歲前」의 시간적 배경이 1918년 12월이었음을 고려하면, 이인화가 전차 종점, 곧 와세다 정거장에 가서 K정으로 향하는 전차를 탔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과 어긋나지 않는다.

3. K정에서의 배회

이인화는 K정에서 전차를 내려 조선에 돌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을 구매한다. K정이 간다정이라는 것은 앞서 확인했으니, 「萬歲前」의 시간적 배경에도 존재했던 '간다역(神田驛)'에서 내려 쇼핑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설은 그

16) 도쿄도(東京都) 치요다구(千代田區) 북동부에 위치한 곳의 지명이다. 1947년 간다구(神田區)와 고지마치구(麹町區)가 합병해 치요다구(千代田區)가 새로 생겼을 때 본래 간다구에 있었던 지명에는 모두 간다를 붙이는 지명 변경이 있었다.

모습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 그럭저럭 時間은, 벌서 세 時가 넘멋섯다. 於此彼에 네 時 차로는 써날 쑴도 안이 쑤엇엇지만은, 인젠 열한 時의 夜行으로나 出發할 수밧게 업다고 決心을 하고, 나는 K町에서 電車를 나리는 길로 塚谷屋으로 쒸어 드러갓다. 半時間 남짓하게나 이것저것 뒤저거리다가, 爲先 急한 쟈켓트 한 個를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洋服저고리 미테 두둑히 입고 나서, 몃 가지 旅行用具를 사들고, 巨里(고유어인데 작가의 착오로 보임:인용자)로 나왓다.[17]

인용에서 이인화는 오후 4시 열차를 타기는 시간이 빠듯해 밤 11시 열차편으로 떠나기로 마음을 먹는다. 인용에서 언급되는 열차는 동경을 출발해 신호를 거쳐 하관으로 가는 열차다. 동경에서 신호까지는 동해도선, 신호에서 하관까지는 산양선을 이용했는데, 이인화가 동경에서 하관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모두 30시간을 넘었다. 하관에서 부산까지의 연결은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이 담당했는데, 연락선에서 소요된 시간도 11시간 정도였다.[18]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1910년대 말 조선과 일본을 오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했던 노선이었다.

다시 인용으로 돌아가 보면 이인화는 K정에 위치한 '塚谷屋', 곧 '총곡옥'에서 재킷과 여행 도구 등 귀국에 필요한 물품을 샀다고 했다. 총곡옥은 일본어로 '쓰카다니야'인데, 여러 자료를 확인했지만 「萬歲前」의 시간적 배경 당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는 힘들었다. 이인화가 총곡옥에서 구매한 물품은 풍침, 여행용 물잔, 왜비누, 여송연, 과자, 비단으로 된 여자 목도리 등이었다. 여기서 다른 물품은 차치하고 '풍침(風枕)'은 바람을 넣는 베개로 여행에서 주로 쓰는 것이었다.[19] 또 비단으로 된 여자 목도리는 'M헌(軒; 켄)'에서 일하는 여급인 '정자(靜子; 시즈코)'에게 주려고 산 것이었다.

---

17) 염상섭, 앞의 소설, 1924, 7면.
18) 박현수, 「스쳐간 만세 '전'의 풍경 1 -일본의 철도와 부산 시가를 중심으로」, 앞의 학술지, 2021, 185-201면; 박현수, 「스쳐간 만세 '전'의 풍경 2 -연락선을 중심으로」, 앞의 학보, 2021, 341-349면 참조.
19) 풍침에 관해서는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참조함. 여기서는 https://folkency.nfm.go.kr/topic/베개 참조.

「萬歲前」에서 이인화는 도쿄를 떠나 경성에 도착하는 데 모두 4일이 걸렸다. 형님에게 무슨 급한 볼일이 있기에 돈을 들여가며 노중에서 묵었냐는 꾸지람을 들은 것처럼 신호에서 숙박을 하지 않고 서둘렀더라도 3일 정도는 소요되었을 것이다. 3일 동안 열차와 연락선을 번갈아 타고 경성까지 가려면 필요한 물품도 많았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이인화가 구매한 물건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총곡옥에서 물건을 사서 나온 이인화는 마땅히 갈 데가 없자 근처 이발소를 찾는다. 쇼핑을 마치고 곧바로 들른 것으로 보면 이인화가 찾은 이발소 역시 K정에 위치했던 곳으로 파악된다. 이인화가 들른 이발소에서는 다소 의아한 상황이 벌어진다.

> "다 싹그세요? 아즉 쌘찬은데요. 面刀나 하시지요." 한 손에 가위를 들은 理髮匠이는 외인손으로 머리 뒤를 살금살금 빗기면서, 이러케 무럿다.
> "그럼 面刀나 할까!" 나는 이가티 對答을 하고 나서 싹지안어도 조흘 머리까지 싹그랴는 只今의 自己가 暫眼間 野卑하게 생각이 드는 것을 깨닷고, 앞헤 세운 體鏡 속을 멀건히 드려다 보다가, 혼자 픽 우서버렷다.[20]

인용에서 이발장이, 곧 이발사는 이인화에게 이발할 때가 안 되었다며 면도나 하라고 권한다. 주임교수에게 어머니 병환까지 들먹여가며 급히 귀국을 요청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후 이인화의 발걸음을 급하지 않다. 동경에서 지체되는 이인화의 발걸음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소설에서는 이인화가 이발소를 찾은 것을 시간이 남아서거나 우연한 일로 눙치고 넘어가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21] 물론 시간의 여유가 전제되었겠지만, 이발할 때도 안 된 머리로 이발소에 들른 이유는 이어진 행선지와 관련이 된다. 그

---

20) 염상섭, 앞의 소설, 1924, 7면.
21) 「萬歲前」에는 전보환으로 돈에 여유가 생긴 데다가 급한 일도 없어서 이발소로 갔다고 되어 있다. 또 이발소에서 나와서는 바로 하숙으로 돌아갈까 하며 고민하는 이인화의 모습을 그리기도 한다. 하지만 밤차로 동경을 떠날 이인화의 다음 행선지는 총곡옥에서 정자에게 선물할 비단 목도리를 살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 여기에 관해서는 염상섭, 앞의 소설, 1924, 7-9면 참조.

는 총곡야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면서 이미 비단으로 된 목도리도 구매했기 때문이다.

조선에 이발사라는 직업이 도입된 것은 19세기 말이었다. 1895년 12월 30일 고종은 단발령을 공포하지만 반발이 심하자 1897년 다시 단발령을 철회한다. 하지만 이후 '갑진개화운동'과 함께 '진보회'의 수만 여 회원이 머리를 자랐으며 이를 계기로 단발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단발을 하려 해도 태어나서부터 길러 왔던 머리를 자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실제 당시 상투만 잘라 머리카락이 너풀거리거나 중의 머리처럼 박박 깎고 다니는 남성들이 많았던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22]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자를 때도 안 됐는데도 이발소를 찾은 이인화의 행동은 극히 일부에 허용된 것이었음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면도를 마친 이인화는 세수를 하고 치장을 차린 후 이발소를 나온다. 이발소를 나와서도 길에서 머뭇거리던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서점이었는데, 소설에는 잡지권이나 살까 하고 '동경당(東京堂)'에 들렀다고 되어 있다. 동경에서 경성으로 향하는 지루한 여행에서 읽을 책을 살 요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설에 동경당으로 등장한 곳은 '동경당서점'이다.

동경당서점은 현재도 간다의 '진보초(神保町)'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진보초는 간다에 위치한 고서점 거리로 약 2㎞의 거리에 200여 개의 서점이 자리하고 있다.[23] 메이지(明治) 시대 진보초 근처에는 명치대학(明治大學; 메이지대학), 동경대(東京大; 도쿄대) 법대, 일본대학(日本大學; 니혼대학) 등이 있었고 초·중·고등학교 역시 급격히 증가했다. 대학에서 초등학교까지 여러 학

22) 일본에 이발이 도입된 것은 1870년대였다. 당시까지 친숙했던 전통적인 머리 모양인 '마게(髷)'를 자르고 '잔기리(散切)'를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로 가는 과정이 되었다. 이발소가 처음 개장하고 이발사라는 직업이 등장한 것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라 각 지방에서도 단발령을 시행하게 되었다. 1873년 1월 나가사키 현에서 발표한 단발령은 단발의 의미를 서양과 견줄 만한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머리를 맑게 하는 수단이자 위생 수단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관해서는 湯本豪一, 연구공간 수유 + 너머 '동아시아 근대 세미나팀' 역, 『일본 근대의 풍경』, 그린비, 2004, 306-308면; 강준만, 「한국 머리카락 논란의 역사: 단발령에서 노컷운동까지, 1895-2007」, 『인물과 사상』, 인물과 사상사, 2007, 165-207면 참조.

23) 井口悦男, 『東京今昔 街角散歩』, JTBパブリッシング, 2012, 12-15面 참조.

교가 생기면서 진보초에는 출판사, 인쇄소와 함께 서점 역시 자리를 잡게 된다. 당시 학생들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신간보다 저렴한 중고서적을 사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중고서적을 판매하는 서점이 늘어나 진보초에 고서점 거리가 들어서게 된 것이었다.[24]



〈그림 2〉 간다 진보초 1정목에 위치한 동경당서점

동경당서점은 진보초 1정목에 위치하고 있다. 옆의 이미지는 필자가 2024년 1월 진보초의 동경당서점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다. 책임자에게 문의했더니 건물은 증축을 거듭했지만 위치는 처음 그대로라고 했다. 「萬歲前」에서 이인화가 들렀던 1918년 12월 당시는 간다에서 발생한 대화재 이후 새로운 사옥을 신축했을 때다.

동경당서점은 1890년 소매서점으로 개업한 후 다음 해부터 출판과 도매 영업도 같이 했다. 1898년에는 잡지의 동향을 다루는 『작시세카이(雜志世界)』를 창간하고 잡지도 취급하기 시작했다. 1906년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이 자비로 『파계(破戒)』를 발간했을 때,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가 『파계』를 구매한

24) 진보초는 에도(江戶) 시대 사무라이들의 숙소가 위치했던 곳이었다. 1868년 메이지유신과 함께 천황제가 시작되자 막부(幕府)가 사라지면서 사무라이 역시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들이 활동했던 건물이나 숙소도 국가 재산으로 귀속되었는데, 숙소는 교육의 무대로 활용되게 된다. 메이지 정부는 진보초에 법학 관련 대학을 설립하는 한편 이전도 시행했다. 명치대학(明治大學; 메이지대학)이 대표적이고, 도쿄대학(東京大學; 도쿄대학) 법대도 현재의 캠퍼스로 이전하기 전까지 진보초에 위치하고 있었다. 대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초, 중, 고등학교 역시 설립됨에 따라 진보초는 동경을 대표하는 서점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鹿島茂, 周若珍 譯, 『神保町書肆街考馬可孛羅』, 2025, 32-45面 참조.

곳도 동경당서점이었다.[25]

동경당서점에서 이인화는 이 책 저 책을 한참 뒤적거리다가 잡지 한 권을 사들고 나온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가 서점에 들렀던 것은 여행에서 읽을 책을 살 목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점을 방문한 목적은 그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데, 그 목적은 자를 때도 안 된 머리로 이발소를 찾은 것과 관련이 된다. 총곡야에서 쇼핑을 하고, 이발소에서 면도를 하고 나왔지만, 그럼에도 술을 마시러 M헌을 찾기에는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다.[26]

동경당서점을 나온 이인화는 우두커니 길거리를 내다보며 섰다가 여전히 느린 발걸음으로 아래쪽으로 향한다. 그런데 그는 잠시 후 자신이 M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깨닫는다. 'M헌'에서 헌, 곧 '軒'의 사전적 의미는 집을 세는 단위로 흔히 '채'로 번역이 된다. 여기서는 가게 이름의 뒤에 관습적으로 붙이는 접미사로 사용되었는데, 메이지, 다이쇼(大正) 시대 '○○헌'은 보통 술집을 가리키는 이름인 경우가 많았다.

> 어느덧 X町 三巨里로 나와 발끗은 M軒 門前에 쑥 섯다. 아즉 손님이 드러오지 안흔 홀 속은 길거리보다도, 陰酸하게 우중충하고, 한가운데 노힌 煖爐에도 불기가 스러져 가는 模樣이엇다.
>
> "에그, 이저버리게 되엇습니다그러! 왜 그리 한 番도 안 오세요."
>
> 밧게서 드러온 사람 눈에는 그림자만 얼숭々々 하는 컴々스그레한 廚房門 겨테 서々, 卓子를 흠치든 손을 쉬이고, 하얀 둥근 相만 이리로 돌리우며, 人事를 하는 것은 P子이엇다.[27]

---

25) 동경당서점은 1913년 간다의 대화재 이후 새로운 사옥을 신축한 후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 최고의 서점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1917년 3월에는 주식회사로 전환해 발전을 이어나가다가 1928년에는 새로운 사옥을 하나 더 지어 중개업에도 나서게 되었다. 그러다가 전시체제기인 1941년에는 출판 업무가 국책 회사에 무상으로 흡수되는 일도 겪게 된다. 여기에 관해서는 田中治男, 『ものがたり. 東京堂史』, 東販商事, 1975, 311-320面 참조.

26) 이인화가 총곡야에서 30분 정도 쇼핑을 하고 나온 시간은 3시 반이었다. 또 자를 때도 되지 않은 머리로 이발소에 가서 면도만 하고 나온 시간은 4시 반 정도였다. 소설의 뒷부분을 참조하면 동경당서점에 가서 책을 보다가 5시 정도에 M헌에 갔는데도 P자가 장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도 이인화가 총곡야, 이발소, 또 서점 등을 들려서 M헌이 문을 열 시간을 기다렸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염상섭, 앞의 소설, 1924, 6-10면 참조.

27) 염상섭, 앞의 소설, 1924, 10면.

인용에서 M헌은 'X정 삼거리'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소설의 뒷부분에서 M헌을 나온 이인화가 오차노미즈(お茶の水) 다리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X정 삼거리'는 스루가다이카(駿河台下) 삼거리로 파악된다.[28] 스루가다이카 삼거리 역시 간다의 진보초에 위치한 곳이었다. 인용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M헌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서술되어 있지만, 이인화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이미 정해져 있었음은 앞서 확인한 바 있다. 또 M헌에 들어섰더니 가게에 손님이 없고 난로에 온기조차 없었다는 서술을 통해, 쇼핑과 면도를 하고 책방에도 들렀다 왔지만 그래도 M헌을 찾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음도 알 수 있다.

4. 'M헌'이라는 공간

이인화가 여기저기를 거닐다가 우연을 가장하고 들른 M헌은 어떤 곳이었을까? 앞서 확인한 손님이 드물었고 난로도 피우지 못했다는 인용 뒤에는 탁자를 닦던 'P子'가 이인화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고는 왜 이리 오랜만에 오느냐며 타박을 주는데, 이는 이인화가 M헌을 자주 찾았음을 말해준다. 이인화와 몇 마디 더 주고받던 P子는 정자를 부르는데, 이인화가 정자의 단골이기 때문이었다. 정자 역시 P子와 마찬가지로 M헌에서 일하는 여급인데, 그녀를 위해 선물을 사고 이발소에 들렀던 이인화의 행동을 보면 단순한 여급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다시 소설에 등장한 M헌으로 돌아가 보자. P子가 부르는 소리에 모습을 드러낸 정자는 '여우(女優)' 머리를 '어푸수수하게 쪽찌고' 깨끗한 '에이프런'을 매고 있다.[29] 여기서 여우 머리는 당시 유행했던 여배우 머리, 곧 단발머리를 뜻한다.[30] 또 '어푸수수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머리 모양이 어지간하

28) Masamichi Asukai 外, 『明治大正図誌: 東京』, 筑摩書房, 1979, 355-381面 참조.
29) 염상섭, 앞의 소설, 1924, 11면 참조.
30) 1910년대 알마 루벤스(Alma Rubens)가 출연한 『The Half-Breed』, 『The Americano』 등의 영화가 인기를 얻자, 그녀의 단발머리가 다른 여배우들을 비롯해 일반 여성들에게까지 유행하

게 어수선하고 엉성하다'는 뜻이니, 단발에 볼륨을 넣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또 쪽찌고 있었다는 것 역시 정말 쪽을 쪘다는 것보다는 핀을 꼽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편이 정당하겠다.[31] 아래 왼쪽 이미지의 『황원행』에서 애라가 하고 있는 머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황원행』에 실린 삽화, 애라가 면후의 술시중을 들다가 스킨십을 하는 모습



〈그림 4〉 미쓰코시백화점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또 소설에는 정자가 깨끗한 에이프런을 매고 있었다고 했는데, 크고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카페 여급이나 백화점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일반적으로 입는 복장, 곧 유니폼에 가까운 것이었다. 위의 오른쪽 이미지는 당시 미쓰코시백화점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의 유니폼이다. 실제 '여급'이라는 명칭 역시 일본의 카페에서 '웨이트리스(waitress)'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던 명칭이 조선에 유입된

게 되었다. 여기에 관해서는 Alma Rubens, 『Alma Rubens, Silent Snowbird』, McFarland, Incorporated, Publishers, 2006, pp.199-225 참조.

31) 식민지 시대 여급의 머리 스타일과 여우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는 김수정. 『한국미용100년』, 동서교류, 2005, 32-43면; 정현진, 『미용문화사』, 광문각, 2005, 107-141면 참조.

것이었다.[32]

이인화는 정자를 따라 M헌의 2층으로 올라간다. 자리를 잡자 그는 맞은편에 앉은 정자에게서 감춰지지 않는 젊은 생명의 욕구와 매정스러울 만큼 경계하는 모습 둘 다를 발견하는데, 정자의 외양과 분위기 등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론하겠다. 정자는 이인화가 들고 온 봉투를 끌러보며 선물이 많다며 조선의 집에 가는지 묻는데, 이인화는 선물 가운데 비단 목도리를 꺼내 술 취한 사람의 장난처럼 정자의 목을 껴안으면서 건네준다.

이인화의 행동에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술자리가 시작되자 정자는 여느 때처럼 술시중을 들며 말상대를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술을 마시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던 이인화가 정자에게 P자도 부르라고 한 것이다. 실제 이인화는 이미 2층으로 올라오면서 탁자를 닦는 P자에게 일이 끝나면 자리로 오라고 얘기한 바 있었다.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가던 이인화는 갑자기 일어나 뒤늦게 합석한 P자를 껴안으며 키스하려는 흉내를 내자 P자가 웃으며 서둘러 피한다. 그러자 그는 그대로 옆에 있던 정자를 끌어안는다.

M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다소 장황하게 살펴본 것은 그것이 M헌이 어떤 공간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M헌에 간 이인화는 선물을 주면서 장난처럼 정자를 껴안기도 하고, 그녀의 시중을 받으며 술을 마시기도 한다. 이인화는 정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P자도 부른다. 그러고는 P자의 손을 만지거나 껴안으며 키스를 하려는 등의 행동도 취한다. 소설에는 이인화가 M헌에 올 때마다 정자, P자 둘을 모두 데리고 술을 마셨다는 언급이 나타난다. 심지어 둘 중 하나에게 다른 손님이 있으면 늦게까지 기다려서라도 기어코 둘 다를 데리고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인화가 들른 M헌이 술을 마시면서 여급의 스킨십 등 서비스를 제공받던 '카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여배우 머리에 핀을 꼽고 에이프런을 매고 있는 정자의 차림에서도 나타난다. 당시 볼륨이 있는 단발

32) 박현수, 『식민지의 식탁』, 이숲, 2022, 148-158면 참조.

머리에 희고 큰 에이프런을 하는 것은 카페 여급의 일반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33] M헌이 카페였다는 또 다른 근거는 술자리에 정자, P자 둘 모두 있었다는 M헌의 운영방식에서도 나타난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박태원의 대표작으로, 1934년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되었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는 구보 씨와 그의 친구인 다료 주인이 종로 낙원정의 카페를 방문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소설에서 구보 씨와 친구가 카페에 자리를 잡자 여급들 역시 부지런히 손님을 맞는다. 소설에는 처음에 세 명, 또 다음에 두 명 등 모두 다섯 명의 여급이 합석을 했다고 되어 있다.[34] 이는 식민지 시대에 카페가 운영되었던 방식을 말해주는데, 손님이 들어서면 먼저 여급 하나가 그 일행을 담당했다. 그러고 나면 그 자리에 여러 명의 여급이 와서 손님에게 술을 권하는 등 술시중을 들었다.[35]

여급들은 이 자리, 저 자리를 옮겨 다녔지만 손님이 앉은 테이블에는 늘 여러 명의 여급들이 있었다. 1920-1930년대 들어서 식민지 조선에 카페가 인기를 얻고 급격히 증가했던 데는 카페에 간 손님이 여러 명의 여급을 데리고 술을 마실 수 있었다는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36] 이인화가 M헌에 갈 때마다 기다려서라도 정자, P자 둘 다를 데리고 술을 마셨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는데, 그것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 나타난 카페의 모습과 겹쳐진다.

이인화가 방문한 M헌이 스킨십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던 카페였다는 것은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말해준다.[37] 카페가 유럽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

33) 손님의 팁과 여급의 성애적 서비스가 교환되는 공간으로 카페의 의미에 대해서는 박정애, 「식민지 조선 사회의 성 구매 변화와 식민권력의 대응-1930년대 여급의 '연애' 매매와 경찰의 성매매 관리 정책-」, 『여성과 역사』 36호, 한국여성사학회, 2022, 107-128면 참조.

34)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조선중앙일보』, 1940.9.14, 3면 참조.

35) 처음 조선에 유입되었을 때 일본인들의 활동 공간이었던 본정과 명치정에 자리를 잡았던 카페는 조선인의 방문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종로에도 진출하게 되었다. 1936년을 기준으로 종로에 거의 300개에 가까운 카페가 있었다고 하니, 적은 숫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일본인이 운영하던 곳도 122개나 되었다고 한다.

36) 우정권, 「30년대 경성과 동경의 '카페' 유흥문화 비교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26호, 한국현대문학회, 2008, 342-352면; 박현수, 『경성 맛집 산책』, 한겨레출판, 2023, 115-139면 참조.

세기였는데, 처음에는 예술가들의 사교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등장했다. 초창기에는 그러한 공간에 성격에 어울리게 커피, 홍차 등 음료를 주로 팔면서 간단한 음식을 제공했다.[38] 일본에 처음 카페가 등장한 것은 1911년 도쿄 긴자(銀座)에서였다. '카페 프란단(カフェー・プランタン)'에 이어 같은 해 8월 '카페 라이온(カフェー・ライオン)'이 문을 열었고, 11월에는 '카페 파울리스타(カフェー・パウリスタ)'가 개업을 했다. 일본에서도 처음 등장했을 때 카페는 커피를 마시고 서양요리를 시식하는 예술가들의 사교공간이라는 성격이 강했다.[39]

1920년대 중반이 되자 일본의 카페는 유럽의 카페와 다른 모습을 지니고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고 한다. 1924년 도쿄의 긴자에 문을 연 '카페 타이거(カフェー・タイガー)'에서는 짙은 화장을 한 여급들이 기모노 차림으로 손님들의 시중을 들면서 스킨십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카페는 주로 술을 팔면서 팁을 받기 위해 여급들이 남성 고객에게 에로틱한 자극과 성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로 그로 난센스'한 공간이 되어 갔다.[40]

1920년대 중반부터 손님의 팁과 여급의 스킨십이 교환되는 공간이 되는 것과 함께 카페가 급격히 증가한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카페를 방문한 손님은 자신의 테이블에서 여러 명의 여급과 함께 술을 마실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萬歲前」에서 이인화는 K정에 위치한 M헌에 갈 때마다 정자, P자 둘을 모두 데리고 술을 마시면서 목을 껴안거나 부둥켜안고 키스를 하려는 등의 행동을 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동경에서 카페가 스킨십 등 에로틱한 자극을 제공한 것은 1920년대 중반 카페 타이거가 긴자에 개업한 것을 계기로 해서로 파악된다. 그리고 그러한 에로틱한 서비스가 처음 이루어진 곳이 오사카에 위치

37) 식민지 조선에 카페가 들어선 것도 다른 근대적 문물이나 유행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거쳐서였다. 조선에 카페가 유입된 시기는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전반에 걸쳐서였다. 당시는 일본에서 카페가 여급의 에로틱한 서비스와 고객이 지불하는 팁이 교환되는 '에로, 그로, 넌센스(エロ, グロ, ナンセンス)'의 공간이 되었을 때였다.

38) 장유정, 『다방과 카페, 모던 보이의 아지트』, 살림, 2008, 23-41면 참조.

39) 旦部幸博, 윤선해 역, 『커피세계사』, 황소자리, 2018, 189-203면 참조.

40) 鹿島茂, 福田和也, 松原隆一郎, 『読んだ、飲んだ、論じた鼎』, 飛鳥新社, 2005, 341-355面 참조.

한 카페들에서였다며 오사카의 퇴폐적인 카페 문화가 도쿄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41] 그런데 「萬歲前」은 카페에 대한 이와 같은 일반적인 논의가 사실과는 달랐음을 말해준다. 「萬歲前」은 1910년대 말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며, 이인화는 그때 도쿄의 K정에 위치했던 M헌을 방문한 것이었다. 그러고는 항상 정자, P자 둘 다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면서 스킨십 등 에로틱한 자극을 즐겼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1910년대 후반 도쿄에 위치한 카페에서도 여급의 성애적인 서비스가 행해졌으며, 여러 명의 여급을 데리고 술을 마시는 관행 역시 익숙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5. 알 수 없는 울분과 전차 속 노동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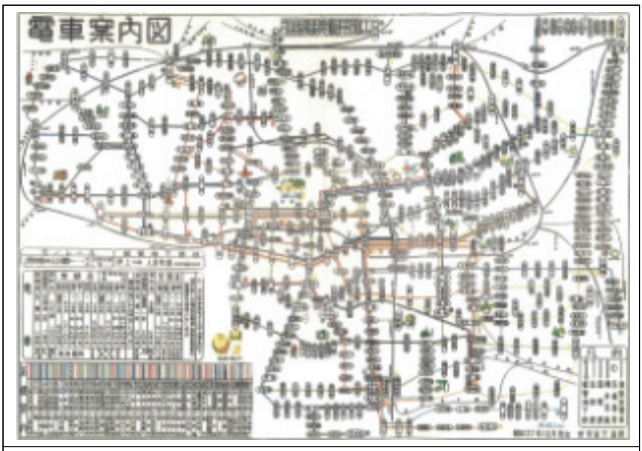
「萬歲前」에는 이인화가 M헌을 나선 것이 아직 초저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M헌에 간 것이 이른 시간이었음을 말해준다. M헌을 나서자 이인화는 전차에 오르려다가 그냥 걷기로 마음을 바꾼다. 술 때문에 열이 오르는 몸으로 사람이 붐비는 갑갑한 차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컴々한 속에서 열병에나 씌운 놈 모양으로, 폿케트에 찔럿든 두 손을 끄내어 가지고 샥리처 보기도 하고, 입엇든 외투나 웃저고리를 버서々 O교 다리 미트로 보기 조케 던저버렷스면, 하는 공상도 머리속에 그려보면서 발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어 O교 정류장을 지나, S교를 향하고 돌처서々 여전히 컴々한 천변가로 헤매이며 나려갓다.[42]

인용에는 이인화가 걷던 길을 돌아서서 O교 방향으로 들어선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O교'는 '오차노미즈교(お茶の水橋; 오차노미즈하시)', 곧 오차노미즈 다리로 파악된다. 1890년 준공된 오차노미즈 다리는 진보초에서 메이지대학을 가로지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다리였다.[43] 그곳에서 그

41) 鹿島茂, 福田和也, 松原隆一郎, 위의 책, 2005, 350-355面 참조.
42) 염상섭, 앞의 소설, 1924, 22면.

는 자신에게 대한 반항인지 혹은 자기 이외의 무엇에 대한 것인지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 소설에는 터무니없는 울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술은 그것과는 별개로 이인화가 오차노미즈 다리로 간다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림 5〉 1923년 도쿄의 전차 안내도

「萬歲前」에는 이인화의 발걸음이 'O교 정거장'을 지나 컴컴한 강변을 헤매며 'S교'를 향했다고 되어 있다. 당시에도 '오차노미즈 정거장'이 있었다는 사실 역시 O교가 오차노미즈 다리였음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이인화가 강변을 따라 걷다가 다다른 'S교'는 '스이도교(水道橋; 스이도바시)', 곧 스이도 다리로 파악된다.[44] 에도 시대에 건설되어 1928년 증축을 거친 스이도 다리는 오차노미즈 다리에서 가장 가까운 다리이자 뒤에 나오는 '포병공창(砲兵工廠)'과도 근접해 있었다.

이인화는 강변을 따라 스이도 다리까지 걸으면서도 반항과 울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소설에는 이인화가 느끼는 감정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 有形無形한 모든 羈絆, 모든 矛盾, 모든 繫累에서, 自己를 救援하여 내이지 안으면, 窒息하겟다는 自覺이 分明하면서도, 그것을 實行할 수 업는 自己의 弱點에 對

43) 오차노미즈 다리는 1890년 11월에 철교로 준공되었다. 길이는 70m에 가까웠고 너비는 11m 정도 되었다. 오차노미즈 다리에 대해서는 五味碧水, 『お茶の水物語』, 吉井書店, 1960, 147-153面 참조.

44) 斎藤長秋, 『江戸名所図会』, 有朋堂書店, 1927, 91-95面 참조.

한 憤懣과 憐憫과 辨明이엇다.[45]

인용에는 유형무형의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인용에 등장한 감정은 염상섭이 1922년 4월과 7월 각각 『개벽』과 『신생활』에 발표한 「個性과藝術」, 「至上善을爲하야」 등의 평론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그 감정이 자아의 확충이나 개성의 발현 등으로 집약되는 것 역시 거듭 강조되어 왔다. 이인화의 사상적 지향과 동경에서의 행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6장에서 다시 상론하겠다.



〈그림 6〉 1884년 도쿄 포병공창 근처의 지도

분만과 연민과 변명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괴로워하던 이인화는 더 견디지 못하고 출발하려는 전차에 뛰어오른다. 소설에는 '포병공창' 앞으로 달아나는 전차에 올라탔다고 되어 있다. 전차를 탄 곳은 오차노미즈 다리에서 스이도 다리로 향한 방향으로 더 올라가 '고이시카와교(小石川橋; 고이시카와바시)', 곧 고이시카와 다리가 있는 쪽이었다. 당시 '고이시카와교(小石川橋)' 정거장의 정확한 위치는 고이시카와 다리와 '고이시카와 고라쿠엔(小石川後楽園)' 사이에 있었다.[46]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울분에 쌓여 간다 강변을 헤매던 이인화가 전차에 오른 곳이 '포병공창' 앞이라는 것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서둘러 올라탄 전차 속에서 이인화는 노역(勞役)과 기한(飢寒)에 뒤틀린 얼굴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시든 얼굴을 하고 서로 물끄러미 보기도 하고 곁의

45) 염상섭, 앞의 소설, 1924, 23면.
46) 『小石川区史』, 東京市小石川区, 1935, 991-995面 참조.

사람들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인화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하층계급의 사람들이 순박하고 순진하다는 생각을 한다. 자랑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으며, 자신과 이웃에 대한 동정만이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하층계급에게 지닌 생각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그들의 고질적인 병이 무지와 무질서임을 강조하기도 한다.[47]

「萬歲前」에는 이인화가 탄 전차가 'E街道'를 느린 속도로 달려갔다고 했는데, E街道가 에도가와가도임은 앞서 확인한 바 있다. 소설에는 E街道를 달려 종점에 도착하는 전차의 모습이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 電車는, 終日 努力에 氣盡하여, 허덕지덕 다리를 끌면서, 잠이 드러가는 집々의 寂寞을 깨트리랴는 듯이, 쌕々 氣 쓰는 듯한 외마디 소리를 치며, E街道의 暗黑 속을 겨오 기어 나와서, 대낫가티 電燈이 달닌 車庫 앞헤 와서 한숨을 휘- 쉬며 웃둑 섯다.[48]

종일의 노동에 지친 전차가 어두운 길을 거쳐 전등이 대낮같이 환한 차고 앞에 정차하자, 이인화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하차하게 된다. 여기서 '차고'는 와세다 정거장에서 한 정거장 먼저인 '와세다차고(早稻田車庫)' 정거장으로 파악된다. 탈 때는 종점이었던 와세다 정거장에서 탔지만 늦은 밤에는 전차가 차고까지만 운행을 했기 때문이다.

이인화는 따뜻한 차장 휴게실로 가는 직공들을 부러운 듯 바라보며 하숙집으로 가기 위해 샛길로 들어섰다. 여기에서도 이인화의 하층계급에 대한 동경 혹은 공감을 엿볼 수 있지만 그 근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이인화는 하숙으로 가다가 귀국 소식을 전하기 위해 뒷집에 사는 ×군에게 들른다. ×군은 그날 밤 귀국한다는 소식을 듣자 놀라며 이인화의 만류에도 '동경역(東京驛; 도쿄역)'까지 배웅을 한다.

동경역에 도착한 이인화가 차표를 사기 위해 출찰구로 가니, M헌에서 얘기를 듣고 배웅 나온 정자가 서 있었다. 정자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눈 그는 X

47) 염상섭, 앞의 소설, 1924, 24-26면 참조.
48) 염상섭, 앞의 소설, 1924, 27면.

군과 정자의 배웅을 받으며 밤 11시에 동경역을 떠나는 열차를 탄다. 새로 준공된 동경역에서 야간열차를 탄 것이 되는데, 동경역이 신축된 것은 1914년 12월이었다. 이전까지 그 역할을 했던 것은 '신교역(新橋駅; 신바시역)'이었는데, 조선에서 1925년 9월 경성역이 세워지기 전까지 남대문정거장이 했던 역할과 겹쳐진다. 실제 1872년에 일본에서 처음 철도가 개통될 때 '횡빈역(横浜驛; 요코하마역)'과 연결된 도쿄의 역도 신교역이었다.[49]

6. 동경의 양가적 성격

2장에서 5장에서 검토한 이인화의 동경에서의 행적을 환기해 보자. 이인화는 M헌을 나온 후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는데, 울분은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억압이나 모순에 대해서는 「個性과藝術」, 「至上善을爲하야」 등에서 찾을 수 있지만, 자각과 그것을 실천할 수 없는 괴리는 오히려 이전 시기 평론인 「二重解放」과 「自己虐待에서自己解放에 -生活의省察-」에서 잘 드러난다. 「二重解放」은 1920년 4월 잡지 『삼광』에, 후자는 1920년 4월 6일부터 9일까지 『동아일보』에 발표된 글이다.

「二重解放」에서 염상섭은 내적인 영혼의 해방과 함께 정치, 경제의 해방 등 이중해방이 긴요한 문제임을 주장한다.[50] 그런데 「自己虐待에서自己解放에 -生活의省察-」에서는 스스로의 노예일 경우 대외적 해방을 요구할 자각도, 권리도 없다고 해 앞선 논리와 괴리를 보인다.[51] 어떤 이유에서인지 염상섭의 지향이 자아와 사회의 변혁을 동시에 지향하는 데서 자기 해방을 우선시하는 데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염상섭은 「二重解放」에서 사회의 변혁을 차치한 채 자아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ᄒᆞᆫ 權威가, 前者(권위-인용자)를 壓服ᄒᆞ"거나 "巧妙히 訓練한 民衆은 犧牲을 밧"치는 "또 다른 새로운 禍根

49) 老川慶喜, 『日本鐵道史 幕府 · 明治篇』, 中央公論新社, 2014, 32-55面 참조.
50) 「二重解放」, 『삼광』 3호, 1920.4, 3-5면 참조.
51) 「自己虐待에셔 自己解放에 -生活의 省察-」, 『동아일보』, 1920.4.6.-9 참조.

을 孕胎흔 改造"[52]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서 유형무형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괴리가 어디서 유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울분에 괴로워하던 이인화는 출발하는 전차에 뛰어오르는데, 그곳이 '포병공창' 앞이었음도 확인했다. '포병공창'은 1871년 메이지 정부에서 소총, 대포, 총알, 포탄 등 육군의 무기를 제조하기 위해 세운 시설이었다. 그곳은 근대 이전까지는 에도시대 막부에서 주로 대포를 만들던 곳이었다. 이후 1879년 10월 제정된 조례에 의해 포병공창, 정확히는 '동경 포병공창'이라는 명칭을 지니게 된다.



〈그림 7〉 간다강 뒤로 보이는 도쿄 포병공창

포병공창이 준공된 시기는 일본이 조선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를 부정적 타자로 상정하고 무력을 통해 침탈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동경에 위치했던 포병공창은 1935년 후쿠오카(福岡)의 소창공창(小倉工廠; 고쿠라공창)이 건설되기 전까지 앞선 무기들을 제조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포병공창에서 제조된 무기들이 공급된 용도 역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53]

하지만 포병공창의 역할은 침탈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는 데 머무르지는 않았다. 포병공창이 신축된 위치는 분쿄구(文京區)인데, 분쿄구는 황궁(皇宮;

52) 염상섭은 「二重解放」에서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순을 정확하게 의식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모순을 배태하는 물질적 조건을 타개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 관해서는 「二重解放」, 앞의 잡지, 1920.4, 3-4면.

53) 三宅宏司, 『大阪砲兵工廠の研究』, 思文閣, 1993; 佐藤昌一郎, 『陸軍工廠の研究』, 八朔社, 1999 참조.

코우구우), 동경역, 동경대학, 상야(上野; 우에노) 등으로 둘러싸인 동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를 침탈하기 위한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동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동경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일본인들에게 상징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54]

이인화가 탄 전차 안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면모 역시 흥미롭다. 이인화는 노동자들을 바라보다가 그들이 이웃에 동정만을 지닌 순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 동경에서의 이인화의 행적 가운데 노동자, 곧 하층계급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 유일한 부분이다. 그런데 관심이 하층계급 사람들의 순박이나 순진에, 또 부정적인 생각이 무지와 무질서에 한정된다는 점은 주목을 필요로 한다.[55] 하층계급에 대한 관심이나 부정적인 인식 모두 앞서 확인한 두 가지 해방 가운데 정신적인 데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인화의 행적 전반을 고려할 경우, 이유를 알 수 없는 울분이나 하층계급에 대한 관심은 일부분에 한정된다. 그의 사고와 행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2장에서 4장에 걸쳐 확인한 바 있다. 이인화는 학교에서 귀국허가서를 받고 K정으로 간 후 먼저 총곡야에 들른다. 이인화가 쇼핑을 한 시간이 30분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총곡야는 같은 점포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백화점과 같은 공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 근대 백화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미쓰코시백화점은 니혼바시(日本橋) 근처에서 문을 열었다. 20세기 초까지 미쓰코시백화점 니혼바시점은 일본 전통옷감을 주로 판매하는 '오복점(呉服店)'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동관과 서관이 개관하는 등 근대적인 백화점의 면모를 갖춘 것은 1920년대 전반에 이르러서였다. 미카사야백화점(三笠屋百貨店), 한큐백화점(阪急百貨店) 다른 백화점들이 근대적인 모습을 갖춘 시기도 미쓰코시백화점

54) 「萬歲前」에는 이인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울분 때문에 간다 강변을 헤매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 간다 지역 역시 1884-1885년 일본에서 최초로 하수도가 건설되는 등 근대 도시로서 동경이 개발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뒤에서 상론하겠지만 근대 자본주의의 이면이 식민지 침탈과 개발로 집약되는 제국주의였다는 점에서, 이인화가 울분을 안고 간다 강변을 배회하는 장면에도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55) 노선이나 승차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전차에서 마주한 노동자들이 포병공창에서 일하던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56]

그렇다면 1918년 말 이인화가 들렀던 총곡야 역시 백화점의 초기 형태로 운영되는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백화점은 넓고 밝은 매장에 여러 가지 상품을 전시한 후 그 이미지를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처음에는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백화점을 찾았던 손님들 역시 점차 다양한 상품이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는 이미지 자체를 소비하는 방식을 습득해 나갔다.[57] 1910년대 후반이라는 시기를 고려하면 이인화 역시 상품의 근대적인 전시와 소비에 익숙해져 있었던 드문 조선인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이다.

총곡야에서 쇼핑을 마친 이인화는 이발소를 찾는다. 당시 비록 여급이었더라도 마음에 둔 이성을 만나기 위해 이발소를 방문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머리나 면도를 하는 일 역시 흔한 일이 아니었음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앞서 비슷한 시기 조선에서는 머리를 자르려 해도 방법을 몰라 상투를 자른 머리카락을 너풀거리게 두거나 아니면 아예 삭발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음도 확인한 바 있다.

이인화의 다음 행선지가 동경당서점이었다는 것 역시 흥미롭다. 앞선 확인처럼 나쓰메 소세키가 『破戒』를 구입한 곳이었음을 고려하면, 동경당서점이 당시 동경을 대표하는 서점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간다의 진보초 거리에는 200개가 넘는 서점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는 동경당서점뿐만 아니라 산세이도쇼텐(三省堂書店),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 등 일본을 대표하는 서점 역시 적지 않았다.[58] 동경의 유명 사립대학에 적을 두고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진보초의 서점가를 거닐면서 책을 읽거나 구매하는 것 역시 누구에게나 허용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4장에서 M헌에 들른 이인화가 정자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확인한 바 있다. 거기서는 M헌이 어떤 공간이었는지 밝히는 데 주력했는데, 이 장의 관심은 오히려 정자라는 인물이 지니는 의미에 놓인다. 정

56) 初田亨, 이태문 역, 『백화점 -도시문화의 근대』, 논형, 2003, 32-41면; 神野由紀, 문경연 역, 『취미의 탄생 -백화점이 만든 테이스트』, 소명출판, 2008, 105-121참조.
57) 初田亨, 앞의 책, 2003, 35-41면 참조.
58) 紀田順一郎, 『古書店地図帖 -東京 · 関東 · 甲信越』, 圖書新聞社, 1967, 151-157面 참조.

자는 “어느 때든지 생긋 웃는 그 입술에는, 젊은 生命이 慾求하는 모든 것을 아무리 하야도 감출 수가 업”지만 “無心쿠 고개를 돌릴 만치 차듸차고 매情스럽을 때도 잇”[59]는 등 설명하기 힘든 매력을 지닌 인물로 등장한다. 하지만 「萬歲前」에서 이인화가 정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주된 이유는 정자가 아내의 반대편에 위치한 존재라는 데 있다.

아내는 15세의 나이에 13세였던 이인화와 혼인을 해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싀집이라고 왓서야 나하고 살아본 동안이 날자로 짜저도 몃츨이 못” 되며, 이인하가 “열다섯 살에 東京으로 逃아얏스니까, 實上은 夫婦라고 말슨”[60]이었다. 그래서 이인화는 “夫婦間이라고 반듯이 사랑하여야 한다는 法이 어데 잇슬까”라며 아내의 병과 죽음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인화의 정자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맺어진 아내라는 존재의 반대편에 위치한다. 아내에게 “사랑할 權利도 잇거니와 사랑을 밧지 안을 權利도 잇”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자를 “自己가 사랑하고 십흐면, 自己가 滿足할 데까지 사랑할”[61] 권리도 있다는 논리이다. 이는 「萬歲前」에서 이인화의 입을 빌려 자주 토로될 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 발표된 평론에서 언급된 개성의 발현이나 자아의 확충과도 겹쳐지는 주장이다.

1장에서 당대 조선을 재현하는 문제와 관련된 「萬歲前」에 대한 두 가지 평가를 확인한 바 있다. 하나는 조선의 식민지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논의였고, 다른 하나는 소설에 그려진 조선의 모습이 지식인의 자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 살펴본 동경에 대한 이인화의 인식은 「萬歲前」에 대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萬歲前」에 대한 온전한 평가는 동경에서 경성에 이르는 여정을 통해 이인화의 사고와 행위에 일어난 변화의 의미를 따져본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앞선 평가 가운데 전자가 여정에서 식민지적 현실을 목도하는 과정을 통해 이인화의 인식이 변화했음에 주목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이다.

---

59) 염상섭, 앞의 소설, 1924, 22면.
60) 조혼에 의해 맺어진 부부 관계의 폐해에 관해서는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환기된다. 여기에 관해서는 염상섭, 앞의 소설, 1924, 174-175면.
61) 염상섭, 앞의 소설, 1924, 19면.

특히 연락선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욕적인 취체, 또 연락선의 목욕탕에서 들은 일본인 브로커에 의해 행해지는 조선 농민의 약취, 또 김천에서 대전으로 가는 열차에서 있었던 갓장수와의 대화, 그리고 대전역에서 목도한 조선인 죄수들의 처참한 모습 등에 대한 이인화의 인식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하지만 여정을 통해 조우하는 식민지 조선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서, 동경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인화에게 동경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울분이 솟아오르는 혹은 하층계급 사람들에게 동정을 느끼는 공간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 동경은 온갖 종류의 상품이 전시되어 있는 매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 또 수많은 책을 갖춘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읽고 싶은 책을 구매하거나, 이발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경은 비록 카페의 여급일지언정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자유롭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62) 이를 고려하면 「萬歲前」에서 경성으로 떠나기 전 동경은 이인화에게 자신을 옭아매는 조선의 봉건적 억압에서 자유로운 공간, 혹은 적어도 그 억압을 망각할 수 있는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소설의 서두에 등장하는 이인화와 형님 간의 대화에 접근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다. 둘의 대화는 동경에서 경성에 이르는 여정 이후였다는 점에서 인식 변화가 전제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선을 '무덤'으로 규정하거나 '겨우 조선을 빠져나간다'는 언급에는 이 글에서 살펴본 동경과 식민지 조선에 대한 대조적인 인식의 그늘이 작용하고 있음도 드러난다.

조선 전체를 묘지로, 또 조선인을 거기에 기생하는 구더기로 만든 실제의 존재가 일본의 식민자들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여정에서 이인화의 되뇜이 이

62)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은 앞선 동경의 의미가 경성으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혹은 경성에서 조선은 묘지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은 구더기에 불과하다는 이인화의 냉소적인 되뇜의 반대편에 위치한다는 사실이다. 이인화에게 식민지 조선이 자신의 개성이나 자아가 발현될 수 없는 그래서 오로지 술에 취하거나 담배나 피워댈 수밖에 없는 묘지와 같은 곳인 것 역시 같은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염상섭, 앞의 소설, 1924, 146-147면 참조.

에 대한 인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지 보다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만세 '전'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한 온전한 묘파 역시 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경에서 경성에 이르는 여로에서 조우하는 식민지적 현실과 그것을 계기로 한 이인화의 인식 변화를 검토하는 과정은, 또 다른 작업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이는 다음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1차 자료

『동아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조선일보』, 『개벽』, 『동명』, 『삼광』, 『신생활』.
염상섭, 「萬歲前」, 고려공사, 1924.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s://folkency.nfm.go.kr/main).
『早稲田文學』, 早稲田文學社, 1906.
『小石川区史』, 東京市小石川区, 1935.

저서

김상규, 『염상섭의 삼대(三代) 어휘 사전』, 이페이지, 2017.
김수정, 『한국미용100년』, 동서교류, 2005.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 출판사, 1987.
박현수, 『식민지의 식탁』, 이숲, 2022.
———, 『경성 맛집 산책』, 한겨레출판, 2023.
장유정, 『다방과 카페, 모던 보이의 아지트』, 살림, 2008.
정현진, 『미용문화사』, 광문각, 2005.
Alma Rubens, 『Alma Rubens, Silent Snowbird』, McFarland, Incorporated, Publishers, 2006.
Masamichi Asukai 外, 『明治大正図誌: 東京』, 筑摩書房, 1979.
紀田順一郎, 『古書店地図帖 -東京 · 関東 · 甲信越』, 圖書新聞社, 1967.
老川慶喜, 『日本鐵道史 幕府 · 明治篇』, 中央公論新社, 2014.
鹿島茂, 福田和也, 松原隆一郎, 『読んだ、飲んだ、論じた鼎』, 飛鳥新社, 2005.
, 周若珍 譯, 『神保町書肆街考馬可孛羅』, 2025.
旦部幸博, 윤선해 역, 『커피세계사』, 황소자리, 2018.
三宅宏司, 『大阪砲兵工廠の研究』, 思文閣, 1993.
神野由紀, 문경연 역, 『취미의 탄생 -백화점이 만든 테이스트』, 소명출판, 2008.
田中治男, 『ものがたり. 東京堂史』, 東販商事, 1975.
井口悦男, 『東京今昔 街角散歩』, JTBパブリッシング, 2012.
佐藤昌一郎, 『陸軍工廠の研究』, 八朔社, 1999.
初田亨, 이태문 역, 『백화점 -도시문화의 근대』, 논형, 2003, .
湯本豪一, 연구공간 수유 + 너머 '동아시아 근대 세미나팀' 역, 『일본 근대의 풍경』, 그린비, 2004.

논문

박정애, 「식민지 조선 사회의 성 구매 변화와 식민권력의 대응-1930년대 여급의 '연애' 매매와 경찰의 성매매 관리 정책-」, 『여성과 역사』 36, 한국여성사학회, 2022.
박현수, 「「墓地」에서 「萬歲前」으로의 개작과 그 의미」, 『상허학보』 19, 상허학회, 2007.
———, 「스쳐간 만세 '전'의 풍경 1-일본의 철도와 부산 시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1.

———, 「스쳐간 만세 '전'의 풍경 2-연락선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63, 상허학회, 2021.
서재길, 「「만세전」의 탈식민주의적 읽기를 위한 시론」, 사에구사 도시카쓰 외 저,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손성준, 「텍스트의 시차와 공간의 재맥락화」, 『동악어문학』 62, 동악어문학회, 2014.
우정권, 「30년대 경성과 동경의 '카페' 유흥문화 비교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26, 한국현대문학회, 2008.
유 현, 「1920년대 노동운동의 발전과 원산총파업」, 『노동계급의 형성이론과 한국사회』, 문학과지성사, 1990.
이종호, 「염상섭 문학과 사상의 장소 -초기 단행본 발간과 그 맥락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6, 한민족문화학회, 2014.
최태원, 「〈묘지〉와 〈만세전〉의 거리-'묘지'와 '신석현(新潟縣)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103, 한국학회, 2001.
하정일, 「보편주의의 극복과 복수의 근대」, 문학과사상연구회 편, 『염상섭문학의 재인식』, 깊은샘, 1998.

【Abstract】

Lee In-Hwa in Tokyo
: The missed scene of 'before'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The First

Park, Hyun-soo*

'W University' and 'K Jeong', which appeared in Yeom Sang-Seop's 〈Mansejeon(萬歲前)〉, refered to Waseda University and Ganda Jeong. In this case, the artist did not follow the practice of writing Chinese characters in the Korean style. Through the expression 'greeting the new year' in the novel, it can be seen that the temporal background of 〈Mansejeon〉 was December 1918. K Jeong's 'ChongGokok', where Lee In-Hwa purchased various items, was a shopping mall close to a department store. The novel described Lee In-Hwa's visit to the barber shop or the bookstore as an accident, but in fact, it was not. The fact that 'M' Ken visited by Lee In-Hwa in 〈Mansejeon〉 was a cafe that provided physical affection says two new facts. Lee In-Hwa from 'M' Ken wandered along the K River because of an unknown anger, and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place he rode the tram was in front of the cannon factory. On the tram, he saw the faces of tired workers and thought they are rather naive. However, Lee In-Hwa's feelings of anger or sympathy for the workers were limited to a part. More importantly, Tokyo was a space free from the feudal oppression of Joseon that sucked him down. Or at least, it can be seen that it was a space where he could forget the feudal oppression. The colonial Joseon before 1919 can be explained through a review of Lee In-Hwa's change of perception on the journey to Tokyo to GyeongSeong.

Keywords: Yeom Sang-Seop, 〈Mansejeon(萬歲前)〉, barbershop, bookstore, cafe, a cannon factory, workers, feudal oppression

접수일: 2025.06.30. ‖ 심사일: 2025.08.06. ‖ 게재확정일: 2025.08.20.

* Honorary Professor, Sungkyunkwan Univ.